

불법 노점에 막힌 통학로...어린이 안전 '적신호'

보호구역인데 천막·좌판대 난립...보행공간 '반토막'
학생들 직접 민원 신고도...광산구 "단속·관리 강화"

“장사하시는 분들 때문에 통학로가 너무 좁아졌어요. 요즘에는 트럭을 끌고 오신 노점상 분들이 신호등 앞까지 물건을 내놓고 있어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인도에 점포형 불법 노점이 난립하면서 통학로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보행 공간이 크게 줄어들자 학생들이 직접 민원을 제기하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4일 오전 9시에 광주 광산구 첨단초등학교에서 라인아파트로 이어지는 약 200m 구간 인도. 등교 시간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지만 도로 한쪽에는 화물차들이 줄지어 정차해 있었다.

차량 적재함에 실려 있던 채소와 과일 상자가 인도로 옮겨졌고, 간이 테이블과 의자, 천막까지 설치되며 순식간에 노점

형태를 갖췄다.

문제는 해당 구간이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점이다. 도로교통법상 보호구역 내 주정차는 제한되지만, 현장에서는 화물차를 장시간 세워둔 채 장사를 이어가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목격됐다. 인도 한 복판에 신발 수십 켤레를 진열한 노점도 있었다.

점포형 불법 노점상들이 늘어지면서 인도의 보행 공간은 성인 1명이 겨우 지날 수 있을 정도로 좁아졌다. 출근길 주민과 학생, 자전거 이용자가 뒤섞이면서 현장은 혼잡을 빚었고, 초등학교 앞이라는 점이 무색할 만큼 작은 재래시장을 방불케 했다.

가장 큰 피해자는 학생들이다. 체구가 작은 아이들은 성인과 부딪치거나 넘어질



24일 오전 광주 광산구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 화물차를 둔 채로 노점상이 운영되고 있다.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다. 상황이 반복되자 한 초등학교는 담임교사를 통해 광산구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직접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을 낸 A군은 “장사하는 사람들 때문에 인도가 너무 좁아졌다”며 “자전거를 타고 가다 대가 줄에서 있던 사람을 칠 뻔한 적도 있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학생도 “발길을 제대로 보지 못해 부딪치거

나 넘어질 뻔한 일이 자주 있다”고 적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아이들의 민원에는 구체적인 개선 요구도 담겼다. “장사를 계속하려면 자리를 넓히거나 다른 장소로 옮겨 달라”, “계단이 있는 이동 경로를 평평하게 만들어 자전거와 교통약자도 다닐 수 있게 해 달

라”는 제안이 이어졌다.

특히 하교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된다. 오후가 되면 노점 수와 이용객이 늘어나며 대가 줄이 길게 형성되고, 보행 동선과 자전거 동선이 뒤엉키면서 사고 위험이 커진다.

불법 노점상 관련 민원은 수년째 반복되고 있다. 광산구에 접수된 민원은 2020년 16건, 2021년 30건, 2022년 41건, 2023년 22건, 2024년 14건이며, 올해도 현재까지 6건이 접수됐다.

공공 보행권과 어린이 안전 침해가 지속되자 행정당국도 대응에 나섰다.

광산구 관계자는 “불법 노점상 난립 문제 해결을 위해 청원경찰과 담당자를 투입해 교통 혼선을 줄이고 보행로를 확보하겠다”며 “현장 계도와 단속을 병행해 동행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임영진 기자 looks@

임재용 인턴기자 djawodyd0318@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오늘의 날씨

예보 07:39 맑음 17:27
예보 11:31 맑음 23:24



광주		-5~-1
목포		-3~-1
여수		-6~-2
순천		-9~-0
구례		-10~-0
광주	맑음	-4~-2
진남	흐림	-3~-2
진남	흐림	0~-3
고흥	흐림	-9~-2
진도	흐림	-2~-2

목포	미물 (고)	05:45 / 18:20
	샘물 (저)	11:03 / 23:44
여수	미물 (고)	00:34 / 13:03
	샘물 (저)	06:27 / 19:22

여수해경, 응급환자 205명 이상
도서민 생명지킴이 역할 '톡톡'

여수해양경찰서가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섬 주민의 ‘생명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올해 여수 도서 지역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는 총 205명으로, 월평균 17.1명에 달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168명보다 37명 (22%) 증가한 수치다. 도서별로는 금오도가 99명 (48.3%)으로 가장 많았고, 연도와 거문도가 각각 18명 (8.8%)으로 뒤를 이었다. 응급환자 연령대는 61세 이상 고령층이 162명으로 전체의 79.1%를 차지하는 등 고령층 비율이 두드러졌다.

환자 유형은 사고 (외상) 보다는 질병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북동·구토, 전신 쇠약 등 질병성 응급환자가 138명으로 전체의 67.3%를 차지했다. 특히 고령으로 인한 거동 불가 전신 쇠약 환자는 지난해 3명에서 올해 19명으로 16명 증가했다. 이와 함께 임신부 1명과 관광객 복어 중독 환자 3명 등 다양한 유형의 응급환자 이상 사례도 발생했다.

여수해경은 도서 지역 응급환자 증가 원인으로 섬 지역 인구 고령화와 한정된 여객선 운항, 관광객 증가 등을 꼽았다. 2026년 여수세계세박람회 개최와 배리섬 섬길 국가관광도로 지정 등으로 전남 동부권 관광객 유입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년에는 응급환자 발생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수해경은 분기별로 관계기관과 공유하며, 유기적인 환자 이송 체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



성탄 미사 성탄절인 25일 광주 북구 임동주교좌성당에서 열린 예수 성탄 대축일 미사에서 신자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며 기도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kwangnam.co.kr

중국산 재첩 국내산 둔갑...10억 챙긴 유통업자

약 20t 식당·온라인마켓 등에 납품...불구속 입건

중국산 재첩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해 10억원의 이익을 챙긴 유통업자 5명이 검거됐다. 여수해양경찰은 25일 중국산 재첩을 국내산 선진강 재첩으로 속여 판매한 유통업자 등 5명을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 관한법을 위반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t가량의 중국산 재첩을 대량으로 구매한 뒤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대형마트, 식당, 온라인마켓 등에 납품·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취급한 전체 물량은 17억원어치로, 범죄수익금

은 1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조사 결과 이들은 선진강 재첩을 채취할 수 있는 시기가 매년 4~6월에 불과, 생산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산 재첩 1말 (20kg)의 도매가격은 8만원 수준이지만, 선진강 재첩 1말 가격은 17만5000원에 달한다. 재첩은 대한민국 대표 정정지역인 섬진

강 하류에 서식하는 민물조개로 황달, 간 질환, 숙취 해소에 으뜸인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산은 수입산과 달리 크기가 작고 껍질의 색깔이 다양하며 광택이 있다. 또 좌우대칭이 맞는 것이 국산 재첩이다.

여수해양경찰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불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며 “먹거리를 수단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단 한 치의 관용도 없이 엄정하게 사법처리 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

달력 품귀 이유 있었네...중고거래 되팔기 성행

관공서·금융기관 무료 달력 1000~5000원에 판매
1인 1개 배부 제한 등 물품 관리 개선 목소리 확대

신년을 앞두고 관공서와 금융기관, 병원 등에서 시민에게 무료 배부한 달력이 중고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나뭇잎의 의미로 제작·배포된 공공홍보물이 일부의 ‘되팔이’ 대상이 되면서 배부 취지와 공공물품 관리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25일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을 살펴본 결과 ‘수협 달력’, ‘MG새마을금고 2026년 달력 세트’, ‘농협 벽걸이 달력’ 등 최근 배부된 달력 판매 게시글이 다수 확인

됐다.

가격은 개당 1000원에서 많게는 5000원까지 책정돼 있었으며, 여러 개를 묶어 판매하거나 가계부와 세트로 내놓은 경우도 있었다. 일부 게시글은 이미 ‘거래 완료’ 상태로, 실제로 돈을 주고 구매한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해당 달력들이 매년 연말연시를 앞두고 관공서와 금융기관, 병원 등에서 시민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대표적인 홍보물이라는 것이다.

중이 달력은 재물운을 부른다는 속설과 공휴일과 행정 일정, 기관 주요 사업 정보가 담겨 있어 고령층과 자영업자 등을 중심으로 수요가 꾸준하다. 여기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ESG 경영이 대두되면서 중이 달력 생산량이 크게 줄었다.

이러한 이유로 연말 무료달력 몸값이 높아지자 개인 간 거래에서 웃돈을 얹어 판매하는 등 돈벌이 수단이 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 이용자 A씨는 “최근 무료 달력을 돈 받고 파는 게시글이 눈에 띄게 늘었다”며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정작 달력이 필요한 사람들은 구하기가 더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이러한 모습에 관계자들도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금융기관의 한 관계자는 “과거에는 달

력도 연연이 등이 그려져 있어 일부 팬층에 수요가 있었지만 지금은 정말 필요한 사람이 문구점보다 중고거래로 사는 것 같다”며 “거래를 막을 방법도 없고 1000~5000원 정도의 저가로 거래되고 있어 제재의 필요성은 아직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이 달력에 그치지 않고 각종 공공 홍보물과 기념품으로 확산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김삼열 서영대 사회복식학과 교수는 “단순히 ‘팔지 마라’는 도덕적 호소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배부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필요 이상의 물량 제작을 줄이는 동시에 시민 인식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재용 인턴기자 djawodyd0318@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